



‘빛그린 광양매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고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확대 등 통한 소비자 신뢰 이끌어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지역특산물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최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빛그린 광양매실’이 지역특산물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국내 최고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장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매실산업 활성화와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

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지원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마케팅 활성화, 매실 기능성 연구, 지역전략적 품신산업 육성을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방영해 광양매실의 명성과 유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국내외 매실소비자 확대에도 힘써 왔다.

특히, 지난 5월 31일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상생 미케팅 기념행사를 갖고 서울과 수도권 50여 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광양매실의 소비 확대와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권 증정 등의 행사를 사용할 판매 촉진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매(Oh梅)았능가!’와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고들빼기 ‘작은 음악회’ 개최

고들빼기 마을로도 유명한 순천시 별양면 개령마을에서 ‘고들빼기’를 찾아가는 만남여행’을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개령이고들빼기 영농조합과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전남본부가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는 오

후 7시부터 9시까지 개령아펠컴센터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작은음악회에는 ‘사랑을 할거야’로 유명한 녹색지대 권선국 가수겸 영화배우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보대시와 ‘세월 참 잘 도 가네요’로 유명한 정하윤 가수

가 출연해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주고, 문홍렬 색소폰 연주와 이정화 레트리에이션과 함께 소통하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에게는 간단한 음료와 순천에서 생산되는 막걸리(친구사이)가 제공되고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영화 상영도 예정돼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금 최초 지급

풋고추 31농가 대상 첫 사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를 추진해온 나주시가 작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커던 풋고추 31농가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금 8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제도를 시

행한 아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따른 첫 보상금 지급 사례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품목별 최근 5년 간 주 출하시기별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평균 80%’를 최저가격 기준으로 설정,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시, 차액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차액금 지원 비율은 나주시가 70%, 나머지 30%는 출하 농가가 평년에 기금으로 모아둔 자조금에서 지원한다.

특히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다양한 요인으로 생산비조차 견디지 못하는 고령·영세농 또는 출하량이 적어 도매시장에 출하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중·소농들에게 최저가격 기준 미만의 차액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명품화순’ 정착 위한 귀농학교 교육생 모집

내달 27일까지 35명 모집



화순군은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 이주 희망자와 이제 막 이주한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 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 도모를 위해, 제10기 화순군 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주

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하는 귀농귀촌학교는 화순의 대표적인 귀농교육 기관으로 화순 귀농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화순군 귀농학교는 2014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교육 과정을 가져 지금까지 총 9기를 운영하여 3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화순군 귀농학교를 수료한 교육생 중 도시민은 260명이었고 이 중 88명이 화순에 정착하여 화순 정착률이 32.3%로 나타났다.

한편 제10기 귀농학교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기간은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이론강의와 현장실습 등 21회, 104시간 강의를 통해 귀농준비 단계부터 농작물 재배 및 가공 부분까지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

을 수 있다.

오승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교육 인프라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화순군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이 생소한 귀농인들은 귀농학교 교육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어 효과적인 화순 귀농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순군 귀농귀촌학교는 1년에 2회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장인들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강교육을, 토요일에는 주간에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061-379-366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폭염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더욱 강화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지방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14명을 지역별 담당제로 편성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5,306가구와 경로당 68개소를 대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는 한편,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하

도록 안내하는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등 62개 장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무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밭에서 일하거나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구하라’ 홍보대사 위촉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순천시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사무국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배우 겸 가수인 구하라씨를 흥보대사로 위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Happy Animals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순천시 일원에서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우선 8월 17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개막행사는 이프리카댄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흥보대사 구하라씨와 함께하는 개막식

과 대한민국 대표 락 그룹인 윤도현

밴드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막작으로는 아일랜드에서 동물

과 인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담아낸 ‘동물원 200’이 상영되며 영화제 기간 동안 19개국 50여 편의 다양한 동물영화가 상영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순천CGV, 청춘장고, 조례호수공원등 6개관에서 쇄선별 영화가 상영되고 리틀포레스트 감독인 임순례 감독의 씨네토크, 동물복지 관련 다큐 감독인 황윤 감독의 특별전,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영화 읽어주는 변사, 반려동물과 문제 행동 강연회, 동물 사진전, 동물 미술체험, 야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연과 동물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순천에서 선보이는 영화제답게,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로서 그 색다른 즐거움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며, 더불어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